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of *Nammyong Songjungdoga*

김 성 수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종파 |
| 2. 번각본 『남명송증도가』의
성립과 체제 | 5. 결 론
<참고문헌> |
| 3. 13세기 전기 고려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 | |

< 초 록 >

이 연구는 『남명송증도가』의 간행배경에 관한 분석적인 논문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명송증도가』는, 영가대사 『증도가』의 각 구절에 남명화상 법진(法泉)이 계송을 붙여 깨달음(覺)의 실체(實體)를 설파한 책이다. 바로 이 책의 간행으로 인하여 고려 중기 불교계에 曹溪禪(看話禪: 修禪社의 結社)이 정착될 수 있는 기저가 확립되었다.

2) 13세기 초기 고려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을 고찰한 결과, 13세기 고려 불교계는 당시 불교계의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修禪社와 白蓮社의 結社運動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한편, 그 시대상황으로는 몽고의 침략(1231) 이후 1238년 경주 황룡사 목조9층탑이 몽고군에 의하여 불타고(燒失), 그 이듬해인 1239년에는 『남명송증도가』가 목판으로 간행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3)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종파들을 고구한 결과, 최이 무신정부는 조계종(수선사)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그 이유는, 무신정부가 수선사의 결사와 연대(連帶)함으로써 수선사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출(導出)해 내고자 하였다.

4)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은, 최이 무신정부가 1239년 당시 수선사의 결사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남명송증도가』를 간행함으로써 수선사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최이 무신정부는 수선사를 통하여 대몽항쟁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수선사 결사를 따르는 민중(백성)들을 규합하여 보다 강력한 대몽항쟁 및 재조대장경 조조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남명송증도가』를 간행하였음을 파악하였다.

要語: 『남명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간행 배경, 금속활자본, 번각본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0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background of publication of *Nammyong Songjungdo-g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Nammyong Songjungdo-ga* is the book about the nature of spiritual awakening, which Nammyong Hwasang Bopjon added the eulogy to each phrase of '*Jungdo-ga*' by Youngga Daesa.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became the basis of establishing the Jogye Order in Buddhism during the mid-Goryeo Period.

2) In the early 13th century, the formation of the Susonsa and Baengnyonsa, which could be considered the unparalleled change in the community of Buddhism, became matured in the Goryeo society. During that period the 7-storied wooden stupa of Hwangnyongsa Temple in Gyeongju was set on fire by Mongolian soldiers in 1238, and *Nammyong Songjungdo-ga* was printed from woodblocks in the very next year.

3) In the 13th century, the military government of Choe Yi supported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the Jogye Order, that is, Susonsa. Their support for the Jogye Order was motivated by their intention to entice the Jogye Order to actively support and cooperate with them.

4) It seems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of Choe Yi published *Nammyong Songjungdo-ga* strongly needed by the Jogye Order in order to seek more activ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Jogye Order with his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Nammyong Songjungdo-ga* was published by Choe Yi's government, because they tried to establish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fighting against Mongolian invaders with the help of the Jogye Order, and motivate the followers of the Jogye Order to participate in resisting Mongol and engraving the second edition of *Tripitaka*.

Key words: *Nammyong Songjungdo-ga*, Background of publication,
Print with metal movable types, Print from the reproduction

1. 서론

「남명전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이하 「남명송증도가」로 약칭함)」¹⁾는 1239년에 당시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이었던 최이(崔瑀: 怡; ?~1249)²⁾가 금속활자본(鑄字本)을 목판으로 翻刻(重彫)하게 하고,³⁾ 이를 대량 인쇄하여 유포·전래시킨 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몽고(元)와의 전쟁의 와중에서, 팔공산 부인사에 보존하여 두었던 초조대장경이 燒失(1232)되고, 이에 재조대장경의 刻板을 發願하여 대장경의 彫造에 여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이는 왜 단 한권의 禪書에 불과한 금속활자본 「남명송증도가」를 시급하게 刻手들을 모집하여 굳이 목판으로 번각하게 하였을까? 또한 1239년 당시에 이를 대량 인쇄하여 전국에 전파시키려 한 동기와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의 문제는 서지학적·문화사적 관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각본 「남명송증도가」의 간행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
- 1)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간행한 「한글대장경」 제284권에 수록되어 있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을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이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즉, 禪門(절집안)에서는 ‘南明法泉’의 法名인 ‘法泉’을 우리말로 읽을 때 ‘법전’이라 지칭한다. 이는, ‘古音’ 또는 ‘뒹뒹’이라 하여, 고려시대부터 전통적·관습적으로 ‘法泉’을 ‘법전’이라고 읽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禪脈을 이어오면서 관습적으로 지칭하여온 이름(法名)이기 때문에, 차후 ‘法泉’ 및 ‘南明泉和尚’을 우리말로 읽을 때나 표기할 때 ‘법전’ 및 ‘남명전화상’이라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2) 본관은 牛峯. 뒤에 ‘怡’로 개명. 아버지는 忠獻. 1219년 최충헌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최고 집정자가 됨. 그는 아버지가 점탈한 公私田民을 주인에게 되돌려주었으며,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대신 한미한 인재를 많이 등용. 1227년에 書房을 설치, 文士들을 등용하여 숙직하면서 정권운영의 고문을 담당하게 함. 1231년부터 대대적인 몽골군의 침입이 개시되자 1232년 국왕을 받들고 강화로 천도하며 향전태세를 갖추었다. 1234년 천도의 공으로 晉陽侯에 봉해짐. 1242년 식읍을 더 받았으며 진양공(晉陽公)이 됨. 이듬해 國學을 보수하고 쌀 300곡을 養賢庫에 바쳤으며, 사재를 내어 再雕大藏經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함. 선정을 베풀기도 했지만, 사치와 전횡이 심하여 백성들에게 원망도 받았다. 해서·행서·초서에 모두 능했다. 강종 묘종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匡烈’.
 - 3) 왜냐하면, 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번각하는 이유는 대량인쇄에 입각한 전래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첫째, 『남명송증도가』의 성립과 체제 등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 고려시대 중 13세기 전기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에 관하여 분석적으로 고찰하며,

셋째, 13세기 당시 고려 불교계 중 어떤 종파와의 관계 때문에 『남명송증도가』를 시급하게 간행하였을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修禪社 등에서 간행된 佛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번각본 『남명송증도가』 간행의 배경(동기 및 이유)이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를 논증하고자 한다.

2. 번각본 『남명송증도가』의 성립과 체제

번각본 『남명송증도가』는 1239년에 당시 최고권력자 최이에 의하여 鑄字本(금속활자본)을 번각⁴⁾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서, 현재 <삼성출판박물관>이 소장(‘보물 제758호’)하고 있는 典籍이다. 즉, 이 책은 永嘉玄覺(665~713)이 저술한 『證道歌』의 각句에 남명화상 법전(法泉)이 7字 3句씩 총 320편의 송(頌)을 이어 붙임(繼頌)으로써, 『증도가』의 깊은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힌 책이다. 이와 같은 『남명송증도가』를 논술하기 전에, 먼저 『증도가』의 체제 및 내용과 저자 사향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증도가』의 저자인 영가·현각은 『경덕전등록』 등에 그 전기가 상세하다.⁵⁾

4) 여기에서 ‘飜刻’의 개념은, 금속활자본을 해체하여 각 낱장을 목판 위에 뒤집어 붙여서 새긴 것을 의미한다. 향간에 ‘번각’과 ‘복각’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존 서지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번각’이라 표기한다.

5) 『景德傳燈錄』 제5권, 『祖堂集』 권3, 『六祖壇經』 등에 의하면, 영가·현각의 法名은 ‘玄覺’이고, 字는 ‘明道’이며, 死後에는 ‘無相大師’라는 諡號를 받았으며, 別號로 ‘一宿覺’이라 한다. 그의 姓은 戴씨이고, 浙江城 溫州府 永嘉縣 출신이기 때문에 ‘永嘉大師’로 지칭된다. 그는 8세에 出家하여 三藏(經律論)을 두루 탐구하고, 특히 天台대사의 止觀에 대한 圓妙한 법문에 정통한 가운데 항상 禪觀을 숭상하였고, 특히 ‘天台止觀’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현각은 六祖慧能(638~714)의 제자라기보다는 天台宗 계통의 선사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이기영, “증도가의 출현,” 『깨달음의 노래』,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6), 240). 여하튼,

「증도가」는 중국 당 시대에 현각선사가 혜능을 친견(參謁)하고 크게 깨달은(大悟) 無上道の 요지 즉, 佛道에 관한 깨달음의 경지를 詩로 노래한 것으로써, 禪書 중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고 인용되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⁶⁾ 이러한 「증도가」의 체제는, 전체가 1,814字⁷⁾ 267句로 구성되어 있는 7言의 장편이며, 전형적인 唐의 古詩라 할 수 있다.⁸⁾

위와 같은 「증도가」는 禪宗의 참선수행과 관련한 핵심 지침서로 주목되면서 많은 선승(禪僧)들이 그 註釋을 붙였다. 그 중 남명화상 법진(法泉)⁹⁾이 계송한 括蒼本 「남명송증도가」가 가장 좋은 판본으로 인식되며, 고려에는 이 괄창본이 도입되어 주자본으로 印出되었다.

「남명송증도가」는 北宋(960~1126)시대에 千頃山에 머물렀던 禪僧 남명화상 법진이, 영가대사 「증도가」의 각 句마다 7字 3句의 繼頌을 각각 이어 붙여, 七言

현각은 혜능을 參謁하고 이에 大悟하였으므로, 중국 선종의 傳燈系譜를 나타내는 「景德傳燈錄」 등에서 혜능의 直系 嗣法弟子로 구분되면서 南宗禪의 巨峰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각의 저서로는 「증도가」 외에 「禪宗悟修圓旨」·「觀心十門」·「永嘉集」·「釋代通鑑」 8卷·「宗統編年」 11卷·「編年通論」 15卷 등이 있다.

- 6) 「증도가」의 要旨는 禪門에서 깨달음(覺: 道)의 세계에 대한 영원불변한 진리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는 精髓를 노래로 읊은 것이다. 그리하여 「증도가」에서는 그 표현의 韻文이 자못 활달하고 유창하면서도 그윽한 뜻을 지니고 있어, 吟誦하면 음송할수록 부지불식간에 佛法의 참 뜻을 터득할 수 있는 바, 일찍부터 참선하는 사람(參學門人)들의 나침반(指南)이 되어 왔다(天惠鳳, 「高麗鑄字版 重彫本 南明泉和像頌證道歌 解說書」(서울: 삼성출판사, 1990), 1).
- 7) 관련 2차서지 등에서, 「증도가」의 총자수는 1,114자 또는 1,558자 등으로 誤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 8) 古詩이므로 모두 七字句는 아니며, 六字句가 51句 섞여 있다. 이 6자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7자구가 세 번 연결되므로 6·7·7·7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증도가」는 바로 이런 형식의 49조(粗)로 결성되어 있는 詩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증도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자료들에는, 일반적으로 七言對句로 123구분하여 끊어서 해석하거나 크게 12章으로 구분하여 해설하기도 한다.
- 9) 한국의 禪家에서는 「法泉」을 「법진」이라 읽는다. 법진은 중국 湖廣 德安府 隨州縣 출신으로, 法號는 佛慧, 法泉은 法名이다. 그는 일찍이 龍居山 智門院의 信玘禪師에게 出家하였다. 그런데 그의 法嗣는 筠州에 있는 雲居의 大愚曉舜선사에게서 받고, 靑原行思(혜능의 嗣法제자 18人 중 1人)의 12세가 된 인물이다. 그는 법을 이어받은(法嗣) 이후 大明·千頃·靈巖·南明 및 金陵의 蔣山 法泉院으로 옮겨 다니며 수행하였던 禪師였다. 그가 南明(山)에서 주석하였다 하여 南明和尚이라 함을 알 수 있다.

四句體로 對句시켜 가며 320篇으로 완성한 것으로써, 禪道의 깊은 뜻(淵旨)을 한층 더 오묘하게 해설한 책이다. 그리하여 고려에서 1239년에 금속활자본 『남명송증도가』의 飜刻本(목판본) 간행으로 말미암아 고려 중기 불교계에 曹溪禪(看話禪: 修禪社의 結社)이 정착될 수 있는 기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의 번각본 『남명송증도가』의 체제 및 구성은 크게, 1) 序文,¹⁰⁾ 2) 本文,¹¹⁾ 3) 後序,¹²⁾ 4) 최이의 刊行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0) 『남명송증도가』에는 맨 먼저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즉, “南明泉和尚頌證道歌一部并序”라는 序文題를 첫 行(세로 줄)에 가지런히 記入한 후, 그 다음 행부터 서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서문은 ‘熙寧十年丁巳(1077)七月’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序의 작자는 括蒼의 ‘吳庸天用’이라 기입되어 있다. ‘천용’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서문의 내용은, 진리 즉 ‘法은 말과 뜻으로 다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과 뜻을 무작정 벗어나려 하는 것도 또한 망상(妄想)에 지나지 않는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부처는 세간을 싫어하지 않음으로써 열반에 들어갔고, 문자를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해탈에 머물렀으며, 번뇌를 끊지 않음으로써 진여(眞如)에 나아갔다’는 말로 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11) 서문 끝의 그 다음 행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그 첫 행에 “南明泉和尚頌證道歌”라는 제목만을 記入한 후 그 행 아래를 비우고, 그 다음 행에서는 그 윗부분을 비우고 繼續者名의 끝을 그 행의 下段에 맞추어 “千頃山沙門 法泉 頌”이라 기입하고 있다. 이 본문은, 위 계송자명의 다음 행 첫머리부터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본문에는, 영가현각의 『증도가』를 각 구절로 구분하여 이를 각 행의 첫머리에 독립적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收錄하고, 그리고 ‘한칸 띄워 쓰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남명법진의 繼續 3句를 ‘붙여쓰기’로 頌을 가하고 있다. 계송이 끝나면 각 行(줄)의 하단부는 여백으로 남기고 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가대사 『증도가』의 각 句는 본문에서 항상 그 다음 行의 첫머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본문의 끝에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一部”라 표기하여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식별시키고 있다.

12) 위와 같은 본문의 마무리 다음에 한 行을 완전히 비우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의 첫머리에 “後序”라고 기입함으로써, 후서의 시작임을 밝히고 그 다음 행의 첫머리부터 후서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후서는 서기 1076년인 ‘熙寧九年 七月 十日’에 括蒼의 ‘祝沆’이라는 인물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인물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 후서로 보아 1076년인 ‘熙寧九年’에 浙江省 淸州에서 처음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천혜봉 교수는, 『남명송증도가』는 이 後序가 작성된 1076년 당해년도에 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명송증도가』 책의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吳庸의 序(文)는 그 다음 해(1077년 7월)에 얻어 追刻하여 卷首에 첨부하였다고 보고 있다(千惠風, 『高麗鑄字版重彫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解說書』(서울: 삼성출판박물관, 1990), 제1쪽 참조.). 後序의 내용 요지는, ‘무릇 法이라는 것은 보아서 알 수도 없고 들어서 알기도 어려운데, 영가대사가 길을 열어 주어 기쁘기 한량없으며, … 또한 泉公(法泉禪師)가 千頃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최이의 간행기는, 중국인 祝況의 後序 부분의 말미에 이어서, 즉 그 다음 줄(行) 각 행 '위 두 글자(後序의 글자크기) 내려쓰기'의 형식의 小字 5行으로 記入되어 있다. 이른바 '晉陽公 崔怡의 刊行記(謹誌) 형식의 跋文'으로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夫南明證道歌者 實禪門之樞要¹³⁾也. 故後學參禪之流 莫不由斯而入昇堂¹⁴⁾ 觀奧¹⁵⁾矣. 然則 其可閉塞以不傳通乎. 於時募工重彫¹⁶⁾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 晉陽公¹⁷⁾ 崔怡 謹誌(무릇 남명화상 법진(法泉)이 게

산에서 무리를 거느리고 「증도가」의 구절구절(句句) 사이에 나누어서 繼頌을 지어 그 뜻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佛性を 원만하게 갖추어, 영가대사의 마음을 수백년 후에 다시 밝히고(昭昭)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 13) 樞要: 가장 요긴하고 宗要로움.
- 14) 升堂: 升堂入室의 준말 의미; '증당입실'이란 '마루에 올라 방으로 들어 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문이 차츰 깊어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禪門에서, 학문이 깊어짐에 대한 비유는 곧 參禪의 수행이 깊어져서 三昧의 경지에 도달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 15) 여기서의 '觀奧'는 '見性の 의미'로, 곧 '깨달음(覺)'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6) 조선시대 前期 및 그 이전에는 '刊行·彫造·重刊·重彫' 등의 용어는 목판본을 새기거나 거듭 새겨진 경우에 쓰여 지고, 활자본의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典籍의 刊記와 跋文에는 '募工' 또는 '鳩工'이라는 용어의 경우에도 刻工을 모아 彫板 또는 刊板하는 경우에 주로 쓰여졌다(천혜봉, 『高麗鑄字版 重彫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解說書』(서울: 삼성출판박물관, 1990), 제44張.).
- 17) 최이는 1242년(高宗 29) "10월에 왕으로부터 食邑을 더 받고 '晉陽公'으로 進爵되었다"고 史書에 記述되고 있다. 그런데 위 「남명송증도가」의 刊行記에는, 1239년인 己亥年의 기록에 '晉陽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작위명(爵位名)'이 아닌가?"하는 의문과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이는, ① '진양공'이라는 공식적인 작위는 1242년에 식읍과 함께 내려졌으나, 그 이전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이에 대하여 당시 관료들이 이미 '진양공'이라고 최고 작위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을 가능성, ② 底本の 書寫者가 당시 최고 권력자 최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존칭의 표현으로 '公'이라고 書寫하였을 가능성, ③ 저본의 서사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최이에 대한 극존칭의 개념으로 '진양공'이라고 의도적으로 서사하였을 가능성, 등등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추정 중 ②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 '진양공'의 '公'은 '晉陽侯(晉陽(지금의 '진주' 지역)을 식읍으로 받은 권력자)에 대한 존칭'의 개념으로 書寫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명송증도가」의 後序에서도, 남명·법진을 주어로 지칭할 때 "泉公 禪師"(「남명송증도가」(影印本) 第43張, 第8行 참조 요.)라고 지칭하여 기록한 것 즉, '남명법진 선사'를 생략하여 지칭할 때에 '泉公(전공)'이라 하여 특정인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세기 후반부터 13세기 당시까지 중국과

송한 증도가는 선문(禪門)에서 가장 요긴하여 으뜸으로 요구되는(樞要) 책이다. 그러므로 후학 가운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 의하여 참선하는 사람들이] 삼매(三昧)의 경지에 깊이 몰입하여, 드디어 그 진리(參禪의 깊은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¹⁸⁾ 그런데 이 책은 그 전래가 끊겨 유통되지 않는다. 이에 [나(최이)는] 刻工(刻手)을 모집하여 주자본(鑄子本)을 [木板으로] 거듭 새겨냄(重彫)으로써 오래토록 전래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때는 기해(己亥: 高宗 26年; 1239)년 9월 상순, 중서령 진양공 최이가 삼가 기록하다.¹⁹⁾

라 하였다. 이 기록은, 고려가 몽고의 침입을 받자 1232년에 수도를 강화로 옮긴 후 8년째 되는 해인 1239년 9월에, 강화 무인정부의 제1인자였던 중서령 최이가 그 간행을 직접 主導하였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위 인용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남명증도가』는 禪門에서 가장 요긴한 책으로, 1239년 당시 그 전래가 끊겨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주자본²⁰⁾을 목판으로 거듭 새긴다(重彫)라고 밝히고 있는 의미는, 이 책이 적은 부수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그 전래가 끊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²¹⁾ 그리고 ‘목판으로 거듭 새겨 오래토록 전래될 수 있게 하고자 함’의 의미 속에는, 이 책을 목판으로 대량 인쇄하여 강화뿐만 아니라 本土(육지)에 유포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사항이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에서는 ‘公’은 특정인을 지칭할 때 사용한 일반적인 존칭의 개념으로 底本の 書寫者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오늘날 특정인을 존칭으로 지칭할 때 ‘○○님’이라고 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 18) 위 본문의 ‘入昇堂 觀奧矣’를 현대적 의미로 풀어서 해석하였다.
- 19) 『남명송증도가』(서울: 삼성출판사, 1990), 제44張. 위 인용문의 해석에서 대괄호([])의 속은 번역의 편의상 필자가 첨가한 것임.
- 20) 그 정확한 주자인쇄의 시기는 현재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목판의 저본(底本; 板下本)이 된 鑄字本은 강화 천도 이전, 즉 1232년 이전의 그 어느 시기에 개성 또는 한반도의 다른 어떤 곳에서 적은 부수로 인쇄되어 완성(印成)된 것임은 틀림이 없다.
- 21) 왜냐하면, 1234~1241년 사이에 금속활자(鑄字)로 인쇄한 『詳定禮文』의 경우에도 28部라는 한정된 부수밖에 인쇄할 수 없었던 당시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의 문제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무신정권의 최이는, 그것도 몽고와의 전란의 와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책을 굳이 선택하여 간행하고 그 刊行記(謹誌)를 직접 남기려고 결심하였을까?’의 문제는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남명송증도가」 간행의 배경에는 필시 그 간행의 근원적인 동기 및 이유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최이는 위의 간행기에서 「남명송증도가」는 선문에서 가장 요긴하여 으뜸으로 요구되는(樞要) 책이라고 직접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혹여 ‘당시의 조계종 및 修禪社 측의 절실한 필요성을 꿰뚫어 보고(看破), 그 간행을 기획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이가 위와 같이 선문에서 가장 중요한 「남명송증도가」를 목판으로 대량 인쇄하여 배포하는 데에는, 그 전래를 오래토록 하려는 간행 목적 이외에, 필연코 그 어떠한 또 다른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13세기 전기 고려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

본 장에서는 「백운초록직지」와 함께 고려 금속활자 인쇄의 중요한 축(軸)이라고 할 수 있는 鑄字本 「남명송증도가」를 1239년에 목판으로 번각(重彫) 간행한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이 책의 출현과 유통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12세기말 13세기초의 전반적인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을 논술하고자 한다.²²⁾

첫째, 12세기말 최충헌 등의 무신정권의 등장을 주목할 수 있다.²³⁾ 그리하여

22) 본 장에서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등에서 이 시대의 주요상황의 기록들을 추출하여 요약한다.

23) 즉 최충헌은 1196년 4월에, 1183년 7월에 실권을 장악하였던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1206년에 최충헌은 旰康候가 되어 興寧府를 개설하면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최충헌이 집권할 동안에 ‘만적의 난’을 비롯한 많은 반란과 농민봉기가 있었으나, 그는 이를 적절히 토벌하거나 회유하여 강력한 권력을 수립하였다. 1216년(高宗 3) 8월에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1218년에는 고려에 침입한 거란군을 몽고와 함께 격퇴한다. 이것이 이른바 ‘江東城戰鬪’이다.

1219년 9월에 최충헌은 집권상태에서 죽고, 그 뒤를 이어 최충헌의 아들인 최이(崔怡)가 집권하게 된다.²⁴⁾

1231년 8월에 살리타이(撒禮搭)가 이끄는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해 왔다. 고려는 몽고에 대항하기 위하여 1232년 6월에 江華로 천도할 것을 결정한다.²⁵⁾ 몽고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1232년 9월에 몽고는 다시 살리타이를 최고사령관으로 하여 제2차 침공을 개시하였다. 바로 이 제2차 침략에서 몽고군은 팔공산(大邱)까지 쳐들어가,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을 불태워버렸다. 그런데 그해 12월 16일의 처인성(處仁城: 경기도 용인) 전투에서 살리타이는 승려 김윤휴가 쏜 화살에 맞아 사살(射殺)되고, 몽고군은 사령관을 잃은 상태로 고려 땅에서 철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1235년 윤7월에는 탕구(唐古)가 이끄는 몽고군이 제3차로 고려를 침략하게 된다.

한편 고려는, 이러한 2~3차에 걸친 몽고의 계속적인 침략과 관련하여, 드디어 고려재조대장경의 판각을 촉발시켜, 1236년 10월에 강화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재조대장경의 조조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전쟁 중 1238년 전쟁의 와중에서, 신라시대부터 우리민족의 상징이었던 경주 黃龍寺(553~1238)의 80미터(m)에 이르는 거대한 <목조9층탑>이 몽고군에 의하여 불태워졌고, 또한 황룡사의 丈六像마저 燒失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고려의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었을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최이가 1239년에 「남명송증도가」를 번각하여 목판본으로 대량으로 간행하기 직전의 고려의 시대적 상황은 바로 위와 같다. 혹여 이러한 시대 상황과 「남명송

24) 최이는 집권하자 그 초기에는 민심을 얻는데 힘썼다. 1225년에 최이는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행정도 장악한다. 그리고 최이는 1227년에는 자신의 집에 서방을 두고 명유를 소속시킨다. 그는 문사와 유생들을 잘 포섭하여 정치에 이용하였다.

25) 최이의 강화 천도는 자못 자신에 넘친 몽고의 방어책이었던 것이며, 그 결과 대몽항쟁에 있어 결정적인 모멘트를 준 것이니, 고려의 강화천도로 말미암아 몽고는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침하였으나, 강도(江都)는 단 일보(一步)도 들여놓지 못하였던 것이다(김상기, 『新編 高麗時代史』(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387.). 그리하여 1234년에 최이는 천도의 공로로 ‘晉陽侯’에 봉하여졌다. 이와 더불어 최이는 지금의 진주 지방을 식읍으로 받았다. 진주의 古地名이 진양(晉陽)이다.

증도가」의 간행과는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13세기초 고려 불교계의 동향 및 특징을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1) 12세기말 13세기초 무신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당시 불교 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이 당시 ‘사상적으로 불교는 儒學·道敎 등 다른 사상과의 관계가 좀 더 밀착되고 혼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²⁶⁾는 점이 그 첫 번째의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²⁷⁾

2) 최씨 무신정부의 집권과 몽고의 침략은, 당시 사회적으로 불교계의 구심점이 개경에서 지방으로 옮겨진 점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다.²⁸⁾ 즉, ‘조계산(순천) 修禪社의 結社(1190)’ 및 ‘만덕산(강진) 白蓮社의 結社(1216)’가 바로 그것이다.²⁹⁾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징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강화 천도 이후 오로지 강화도라는 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최이를 비롯한 무신정권은 몽고와의 항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본토 즉 육지에서 특히

26) 허홍식,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高麗 中·後期佛敎史論』 (서울: 민족사, 1986), 83.

27) 무신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문벌세력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세속을 등지고 入山하여 승려가 됨으로써 목숨을 유지한 문벌의 자제들이 많았다. 이들은 승려로 생애를 마친 자도 많았지만, 明宗(1170~1197) 이후 科擧를 통하여 官人으로 진출하려고 환속하는 자도 많았다. 李仁老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당시 유학의 수준은 佛僧들에 의하여 명맥이 유지되는 형편이었고, 이 때문에 유학은 불교에 예속된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몽고의 침입으로 인하여 강화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개경에 기반을 둔 관리 중 강화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하한 자들 중에서 入山하던 자가 늘어났다. 이들은 國子監試 또는 禮部試에 급제할 정도로 유학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들이 많았다. 즉, 眞覺 國師 慧謙(1178~1274: 24세에 司馬試에 합격, 入山 후 보조국사 지눌에 이어 조계산 修禪社의 제2世 社主를 맡아 玄風을 크게 떨침.), 원감국사 沖止(1226~1292: 19세에 문과에 장원급제, 後에 조계산의 제6代 宗主가 됨), 眞靜 國師 天頤(1206~?: 귀족의 자제로 문과에 급제, 後에 白蓮社의 제4代 祖師가 됨)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었다.

28) 특히 고려정부가 강화로 천도한 이후, 당시 불교계의 고승들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그 활동기반을 굳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몽고의 침략이 계속되자 한반도 중부 이북의 사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남부 지방의 사찰들이 당시 불교계의 중심 도량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허홍식,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85.).

29) 이는, 고려 정부가 몽고와의 항쟁기간 동안에 전국의 불교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지방 불교계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고의 침략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한반도 남부지방의 백련사나 수선사로부터의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 및 대장경의 조조를 위한 노동력의 투입 등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최이 정부는 바로 이들 불교계를 기반으로 하여, 몽고와의 항쟁 중 전투의 최일선에서 직접 전쟁을 치루고 있는 民草 즉, 농민과 노비 등 일반 백성들의 민심수습 및 그들의 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이가 이끄는 무신정권은 대몽항쟁의 지속을 위한 이념적 중심기반(土臺)을 당시 불교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1238년에 경주 황룡사의 목조9층탑이 소실되고, 민심이 흉흉했던 당시 시대 상황들과 번각본 『남명송중도가』의 간행은 상호 깊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수선사와 백련사를 양 軸으로 하는 지방 불교계의 躍進으로 인하여, ‘13세기 당시 고려 불교계는 귀족중심적인 경향에서 민중중심적인 경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³⁰⁾고 볼 수 있다. 이것이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¹⁾

요컨대, 위와 같은 고려 12세기말 13세기초 불교계의 동향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1190년 수선사의 결사 및 1216년 백련사의 결사를 들 수 있다. 이들 결사는 13세기 불교계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1232년경에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몽고의 격퇴를 위한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조 사업이 1236년부터 시작·판각됨을 볼 수 있다. 또한 1238년 경주 황룡사 목조9층탑이 불타고, 그 이듬해인 1239년에는 『남명송중도가』가 목판으로 간행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30) 허홍식,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86.

31) 12세기 전반기에는 문벌귀족 출신의 教宗 승려들이 王師·國師를 독점하였으나 12세기 후반에는 禪宗 출신의 왕사 국사가 책봉된 예도 찾아진다. 즉, 원감국사 혜심의 부친은 향공진사였고, 원묘국사 요세의 아버지 또한 호장이었던 예가 바로 그것이다.

4.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종파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13세기 前期 당시까지의 고려 불교계의 종파들에 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선봉사 대각국사 비문>에 의하면, 고려초기의 대표적인 종파로서 조계종³²⁾· 화엄종³³⁾· 유가종³⁴⁾을 들 수 있다.³⁵⁾³⁶⁾ 이러한 3대 종파에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창립한 천태종이 가세되면서, 13세기 이후의 불교는 이른바 四大業 즉 고려 불교의 4대 종파 시대를 맞았던 것이다.³⁷⁾

위와 같은 4대 종파 중에서, 13세기 고려 불교계를 주도하는 화엄종 및 유가종, 천태종, 조계종의 종파별 활동상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華嚴宗과 瑜伽宗

불교의 敎宗과 禪宗 중에서, 교종에 속하였던 화엄종³⁸⁾과 유가종³⁹⁾은 12세기 후기까지 고려의 대표적인 종파였다.

32) 慧能의 南宗禪을 이어온 曹溪宗을 의미함.

33) 여기서는 신라의 義湘大師를 계승한 華嚴宗을 의미함. 화엄종은 대각국사 의천이 입적(1101)할 때까지 왕권의 강화하려는 왕실 및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었던 귀족불교의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4) 신라 元曉의 학풍을 바탕으로 하면서, 眞表律師의 修懺을 중요시한 수행생활을 접합시킨 瑜伽宗을 의미함. 유가종은 주로 왕실의 외척과 연결된 귀족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서울: 일조각, 1997), 166)는 경향을 보인다.

35) 황수영 편저, “高麗僊鳳寺大覺國師碑陰記,” 『第五版 韓國金石遺文』(서울: 일지사, 1994), 476.

36) 이 세 종파는 이른바 三大業이라 불렸고, 국사·왕사의 배출도 이 세 종파를 벗어나서 책봉된 예가 없었다.

37) 의천이 천태종을 開闡하는 데에는, 당시 고려불교계에 있어 敎宗과 禪宗의 대립 경향으로 인하여, 敎觀雙修의 교리를 지닌 천태종을 내세워 종파불교를 극복하려는 의천의 보편주의와 국제주의의 사상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38) 화엄종은 光宗(949~975) 이후에 교종의 핵심종파로 등장하였다.

39) 유가종은 文宗(1046~1083) 이후 통불교적인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여 禪宗(曹溪宗 등)의 위치를 대신하면서 화엄종과 함께 고려중기 불교의 二大 敎宗으로 자리를 굳히는 경향을 보였다.

첫째, 유가종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현화사⁴⁰⁾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發願되었던 고려초조대장경을 彫造(1011~1087)하였던 핵심적인 중심 도량이었다.⁴¹⁾ 따라서 초조대장경의 조조는 바로 유가종을 중심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화엄종의 대표사찰이었던 興王寺는, 文宗의 아들 즉 왕자출신인 대각국사 의천이 소속하였던 사찰이었으며, 의천은 바로 이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성하여 드디어 教藏(속장경)을 간행하였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따라서 ‘교장(속장경)은 화엄종에서 주도하여 조성하였다’⁴²⁾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196년 이후 최씨 무신집권기로 들어서면서, 위 양대 교종의 승려들과 사원들은 무신정권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고 급격하게 위축되었다.⁴³⁾ 그렇지만, 13세기 고려불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사업이었으며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완성된 고려재조대장경의 판각은, ‘당시 최이가 이끄는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던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에서 그 조판을 주관하기는 하였으나, 경전 판각의 이론적인 측면은 당시 최고의 교감학자였던 守其를 비롯한 화엄종 승려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⁴⁴⁾을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13세기의 화엄종은, 비록 그 세력은 미미하였으나, 재조대장경의 판각사업과 관련하여 그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40) 玄化寺는 고려초에 확립된 3대 종파 가운데 교종에 속한 유가종의 사원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는 眞殿寺院이었다.

41) 開豐玄化寺碑, 『韓國金石全書』(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445-446.

42)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서울: 일조각, 1997), 167.

43) 『高麗史』 列傳42에 의하면, 무신집권 이후 무신들은 문신귀족 세력을 도태시키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종의 승도들과 무신정권과의 격돌을 들 수 있다. 즉 1217년(高宗 4)에 문신귀족과 연결되어 있었던 흥왕사·흥원사 등 교종 사찰의 승도들이 무신정권에 반항하면서 최충현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격돌에서 교종의 승도들은 최충현에 의해서 도리어 분쇄당한다(『高麗史』 列傳42 崔忠獻條). 그리하여 최충현 집권시대에서 개경의 문벌세력과 결탁되었던 교종세력 즉 화엄종과 유가종은 그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44)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168.

2) 天台宗

11세기말 의천이 고려에 천태종을 창립하면서 조계종의 세력 중 6~7할을 포섭하여 천태종에 흡수되었고, 최충헌의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교종의 세력들이 분쇄된 후, 1217년 이후 고려 불교계는 천태종과 조계종을 비롯한 禪宗 세력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천태종에서는 了世(1163~1245)가 출현하여 백련사⁴⁵⁾ 결사를 조직함으로써 교세를 확장시켜 나간다. 요세가 일으킨 백련사 결사는, 강진 萬德寺 옛터에 절을 지어 이를 ‘白蓮社’⁴⁶⁾라 이름하고, 1216년에 강진의 토호들⁴⁷⁾의 지원에 의하여 백련사 결사를 결성하였다.⁴⁸⁾ 이와 같이 백련사가 개창될 때에는 강진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지방수령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⁴⁹⁾ 요세는 1236년에 제자 天頤으로 하여금 ‘白蓮結社文’을 찬술·공포케 하여 그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백련사는 오히려 지눌의 定慧社 못지않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요세 이후 8國師가 배출되는 등 그 교세를 떨쳤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천태종이 무신정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⁵⁰⁾

백련사는 12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몽항쟁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최이 무신정부는 자연스레 백련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백련사와 최씨정권과의 관계는 1230년대 이후에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⁵¹⁾⁵²⁾ 실제로,

45) 白蓮社는 원래 中國 東晉의 高僧 慧遠이 東林寺에서 念佛往生을 結社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46) 현재의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의 白蓮寺임.

47) 崔彪·崔弘·李仁闡 등.

48)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서울: 일조각, 1991), 71.

49) 실제로, 帶方(남원)의 태수였던 卜章漢이 남원 관내에 ‘제2의 백련사’를 개창하도록 주선한 다든가, 崔璘의 경우 그가 나주목사로 부임하면서 나주의 雲谷寺에 요세를 夏安居하도록 청한 사례가 있다(채상식, 『高麗後期佛敎史研究』, 81.).

50) 한편 ‘백련사도 普賢道場이 개설된 뒤부터, 수선사에 대한 것보다는 미약하지만, 최씨 무신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련을 맺었다. 그리고 이것은 백련사의 대몽항쟁과 어느 정도 연관된 배려라고도 보여 진다(유영숙, “고려 무신정권시대 불교계의 동향,” 226.)’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세에 의하여 1216년 백련사가 결성되고 보현도량이 설치되는 1232년까지 즉, 1220년대의 白蓮社는 지방토호와 지방관에 의하여 존속되었지만, 123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백련사는 강력한 대몽항쟁을 표방하게 된다.

51)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의 전개 양상과 그 경향,” 255-256.

첫째, 1237년에 高宗은 요세에게 ‘禪師’의 직함과 세찬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75세였던 요세에게 ‘선사’의 직함을 내린 조처는 분명 백련사측의 보현도량의 설치와 대몽항쟁과의 관련된 대응조처였기 때문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최씨 정권과 연결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⁵³⁾는 견해가 있다.

둘째, 최이는 1240년 8월에 백련사에서 『法華經 戒環解』를 조판케 하고, 최이 본인이 직접 跋文을 작성한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최이가 백련사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직접 나섰던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요세 死後에 백련사의 2世 法主로 오른 天因이 강화정부에 보낸 疏에서, 최이를 祝願하고 있는 점⁵⁴⁾은 보현도량과 최이정권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13세기 전기에 최이 무신정권은 몽고의 침략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던 지방사회의 대다수 민초들의 신앙이 정도신앙임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백련사의 결사운동이 피지배층 즉 대다수의 농민·천민층까지도 그 대상이었으므로 일반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몽항쟁을 위한 이념적 토대의 마련 및 무신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이는 백련사의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백련사를 중심으로 한 천태종은 1230년대와 1240년대에 무신정권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曹溪宗(修禪社)

11세기말에 의천이 고려에 천태종을 창립하면서 기존의 조계종 세력 중 6~7할을 포섭하여 천태종에 흡수시킴으로써, 조계종은 한때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

52) 실제로 1230년대 이후 백련사와 최씨정권과의 밀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첫째, 康宗(1211~1213)의 庶女이며 최충헌의 부인이 된 靜和宅主는 백련사에 無量壽佛을 봉안케 하고 『法華經』의 金泥寫經을 하게 하였다(了圓, 『法華靈驗傳』 卷下, “天帝邀經而入藏” 참조.). 둘째, 최씨정권 하에서 武人으로 활약하다가 뒤에 몽고와의 강화시에 활약한 인물인 李世材의 경우 1236년에 白蓮社에 入社하고 『法華經』 1,000여부를 조판하여 널리 유포하였다(天頭, “答靈巖守金郎中愜書,” 『湖山錄』 卷下.).

53)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81.

54) 天因, “初入院令壽齋疏文,” 『東文選』 卷111.

러나 의천의 천태종 개창 당시 천태종에 흡수되지 않았던 조계종의 승려들⁵⁵⁾은 그 禪風을 면면히 이어 나갔으며, 특히 보조국사 지눌(1158~1210)에 의하여 1190년에 定慧社(修禪社)가 結社된 것이 하나의 큰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⁵⁶⁾⁵⁷⁾ 한편, 무신정권은 당시 교종과 대립관계에 있던 禪宗 쪽을 주목하게 되었고, 선종 또한 그 자체가 지니는 성격상으로도 무신정권과 접근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⁵⁸⁾ 특히 최이와 수선사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였다. 즉, 1219년 9월에 최씨 무신정권의 제2대 집권자로 등장한 최이는, 1210년에 보조지눌에 이어 第2世 修禪社 社主에 오른 진각국사 慧謙(1178~1234)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최이 또한 몸소 수선사에 入社하여 혜심을 공경하였고, 그의 두 아들 만종과 만전을 조계산에 보내어 혜심의 제자로 삼게 함⁵⁹⁾으로써, 최이는 수선사를 물심

55) 圓應國師 學一(1052~1144), 李資玄(1061~1115), 大鑑國師 坦然(1070~1159) 등이 주목된다. 이들은 중국 南宗禪의 慧能 이래 臨濟義玄의 禪風을 계승하고 있었다. 특히 이자현은 「능엄경」을 중시하면서 위기에 처한 고려 중기 선종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56) 즉, 고려 중기 이후 개경 중심의 귀족불교에 대한 반발과 반성을 토대로 신앙실천을 위한 결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지눌은 1182년에 이미 개경 普濟寺에서 10여명의 동료들과 定慧結社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눌은 드디어 1190년에 八空山 居祖寺에서 結社文을 지어 定慧社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修禪社의 시발이었다.

57) 지눌은 1200년에 송광산 吉祥社(曹溪山 松廣寺)로 옮겨와서 頓悟漸修를 바탕으로 한 定慧雙修를 주장하면서 11년 동안 이 절에 머물면서 曹溪禪의 선양에 힘썼다. 熙宗은 지눌의 이러한 결사에 감동하고, 1205년에 왕명으로 ‘송광산 길상사’를 ‘조계산 修禪社’로 개명하게 하였다. 이 사찰은 定慧結社의 취지를 받들면 당연히 ‘定慧社’라 칭하여야 마땅하다. 이런데 이 절의 이웃에 ‘定慧寺’가 이미 있어서 그 명칭이 서로 혼동되기 때문에, 朝旨를 받들어 ‘定慧社’를 고쳐 ‘修禪社’라 하였다. 여기에 많은 승려들이 호응함으로써 고려 후기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눌과 慧謙 이후 이 송광사에서 16國師가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선풍을 크게 떨쳤다. 한편, 최충헌의 무신정권은 문벌귀족과 연결되어 있었던 교종과 대립되는 관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禪宗인 조계종 및 천태종과 밀착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사례로 『東國李相國集』 25권의 「昌福寺談禪榜」에 의하면, 최충헌은 1211년에 옛 昌福寺를 복원하고 禪房을 여는 등 대규모의 參禪法會를 지원하는 등 禪宗과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는 현상을 보인다.

58) 이기백·민현구 편,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 高麗編』 (서울: 일지사, 2003), 211.

59) 혜심도 이러한 최이의 귀의에 대하여, 그를 위해 축수제를 주재하는가 하면, 그가 이끄는 무신정권의 시정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혜심과 최이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혜심이 入寂(1234)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혜심의 입적 후에도 최씨 무신정권의 수선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예컨대, 진각혜심의 입적 후 2년 뒤에 최이는 江都(江華)에 수선사의 분사와 같은 선원사를 창건하였다. 이 선원사에 진명국사 混元(1191~1271)이 그 주명으로 있다

양면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당시의 고려불교는 선종 중 조계종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사업이었던 고려재조대장의 조조는, 최이가 이끄는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던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에서 그 조판을 주관하고 아울러 완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3세기 전기의 최씨 무신정권은 특히 수선사의 法席을 잇는 사주들과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계종의 宗刹인 수선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최이가 수선사를 크게 부각시킨 이유는, 수선사가 당시 사회에서 기존의 여타 종파에 비하여 크게 호응을 받아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무신정권의 세력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핵심의 수선사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⁶⁰⁾ 그리하여 최이정권과 가장 밀착되었던 당시의 불교 세력은 바로 수선사 계통이었다⁶¹⁾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최이 정권은 대몽항쟁의 와중에서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한반도의 남서부지방 및 남부지방과 남해안의 여러 도서지방의 토호와 백련사와 수선사를 비롯한 각 사원의 도움을 아니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최이 정권은 강화로 천도하여 육지와 고립된 상황에서 대몽항쟁을 치루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철저하게 불리한 조건이었고, ‘백련사나 수선사 등 僧俗을 초월한 결사 운동은 남녀·빈부·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하는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⁶²⁾ 게다가 최이 정권은 육지의 대다수 국민 즉 민중들인 피지배계층의

가, 혼원의 스승인 몽여가 입적하자, 혼원은 수선사로 내려가 수선사의 제4세 社主가 되었다. 이렇듯 수선사는 최이정권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교단 확립의 터전을 닦았던 것이다(이기백·민현구 편,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221-222.). <진각국사 비명 병서>에 의하면, 핵심은 최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그를 도성으로 맞아들이려는 최이의 간청도 끝내 거절하고, 오로지 修禪社(松廣寺)를 지키면서 새로운 선종의 진작에 힘을 기울여 조계종의 기반을 확립시켰다(① 李奎報 撰, “曹溪山第二世 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 『東國李相國集』, 卷35. ② 민현구, “고려의 대몽항쟁과 大藏經,” 『高麗中後期 佛敎史論』 (서울: 민족사, 1986), 301.).

60) 채상식, “고려시대 結社運動의 시대적 인식,” 『高麗佛敎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234-235. 참고.

61) 채상식, “高麗後期 佛敎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253.

농민과 천민들을 대몽항쟁에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중들과 결합된 결사운동의 단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몽고의 침입이 있자 지배계층인 왕족과 조정의 관료들은 강화도라는 안전한 섬에서 향락적 생활을 계속하였던 점에 비해, 일반백성들은 육지에서 항몽 전선의 주력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것이다.⁶³⁾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1232년(高宗 19) 1월 忠州城의 전투에서 상층민(貴族)들은 모두 도망치지만, 노비와 잡류의 민초들이 끝까지 분전(奮戰)하여 몽고군을 격퇴시키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⁶⁴⁾ 또한 1231년 9월의 평북 귀주 부근의 馬山 및 廣州의 초적(草賊)들이 대몽항쟁에 투입되어 전공(戰功)을 올린 사례⁶⁵⁾ 등 대몽항쟁의 실제 전투에서는 하층의 농민과 노비 즉 일반백성들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⁶⁶⁾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최이에 의하여 「남명송증도가」가 1239년에 금속활자본을 번각하여 시급하게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을까?

위의 문제에 대하여 서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故 윤병태 교수가 편찬한 『韓國書誌年表』⁶⁷⁾에서 13세기초 간행의 서지사항의 종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200년대 초반부터 당시 수선사의 結社理念 및 참선수행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에 관한 그 간행사항들을 살펴보면,

① 수선사의 으뜸가는 수행의 지침서인 「육조대사 범보단경」⁶⁸⁾이 1207년에

62) 허홍식, “13세기 高麗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86.

63) 민현구, “고려의 대몽항쟁과 대장경,” 293.

64) 『高麗史節要』 16, 高宗 19년 正月條.

65) 『高麗史節要』 16, 高宗 19년 9月條.

66) 민현구, “高慮의 대몽항쟁과 大藏經,” 293. 참고.

67)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國會圖書館, 1972).

68) 『六祖大師法寶壇經』은 「범보단경」 또는 「육조단경」이라 약칭되는 것으로, 681년 慧能의 자서전적인 일대기를 담은 저술이다. 이 책에서는 頓悟·見性の 사상을 설하며, 특히 『金剛經』에 기초하여 般若三昧를 설하고, 一切法이 無相無念임을 밝히는, 이른바 南宗禪의 독립을 선언한 책이다. 修禪社를 개창한 지눌은 일찍이 이 『범보단경』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은 修禪社의 으뜸가는 수행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그 刊行地가 修禪社이며, 이 책을 1207년에 간행한 것으로 보아, 지눌이 1200년에 수선사로 옮겨와서 수선사의 結社를 본격화 한 후 많은 수행승들이 운집됨에 따라, 그 수행의 으뜸가는 지침서인 「범보

修禪社에서 가장 먼저 간행되었으며,

② 지눌의 문중에서 매우 중요시하였던 불전인 『화엄론절요』⁶⁹⁾가 1207년에 수선사에서 『법보단경』과 함께 두 번째로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남명송증도가』의 母本임과 동시에 南宗禪의 핵심 지침서인 『영가대사 증도가』⁷⁰⁾가 1209년에 조계종의 중요사찰 중의 하나였던 開城 普濟寺⁷¹⁾에서 간행되었다.

④ 보조국사 지눌은 대해·종고의 『대혜어록』을 보고 크게 깨우친 바 있는데, 이러 한 대혜선사가 엮은 公案集인 『정법안장』⁷²⁾이 1213년에 수선사에서 간행되었고,

⑤ 禪門의 핵심을 설파한 『중경촬요』⁷³⁾가 1213년에 수선사에서 『정법안장』과 함께 간행되었다.

⑥ 看話禪의 참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눌이 직접 저술한 『간화결의론』⁷⁴⁾

단경』의 雕造를 서둘렀던 결과, 수선사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책이라 볼 수 있다.

69) 『華嚴論節要』 또한 수선사에서 간행한 禪宗 관련서로서, 唐 李通玄(636~673)이 쓴 『新華嚴經論』을 知訥이 정리하여 1027년에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要諦는 禪과 華嚴의 통로를 여는 지눌의 역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눌의 門中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수선사에서 두 번째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70) 『永嘉大師證道歌』는 1209년에 13세기 당시 曹溪宗의 중요사찰 중의 하나였던 보제사에서 宋板을 翻刻하여 간행한 것으로, 南宗禪의 核心 指針書이다. 이 책은 『남명송증도가』의 모본(母本)으로서, 깨달음의 상태를 직접 설한 것이기 때문에, 30년 뒤인 1239년에 『남명송증도가』가 간행되는 단초(端初)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71) 1129년에 목암·탄연이 이 절의 住持였고, 13세기 曹溪宗의 중요 사찰 중의 하나.

72) 『政法眼藏』 또한 修禪社에서 간행한 것으로, 이 책은 臨濟宗의 禪師였던 大慧宗杲(1089~1163)가 엮은 公案集이다. 지눌은 定慧結社를 조직한 후인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수행할 때에 대해·종고의 『大慧語錄』을 보고 크게 깨우친 바 있다. 때문에 대혜종고의 공안집은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에서 실제로 參禪修行하면서 깨우침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로 삼은 책이라 볼 수 있다.

73) 『宗鏡撮要』 역시 修禪社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 책은 北宋의 延壽(904~976)가 지은 『宗鏡錄』 100권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경록』의 요지는 ‘心外無佛 觸目皆法/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온갖 것이 모두 법이다’라는 禪門의 핵심을 설파한 것이다.

74) 『看話決疑論』은 보조국사 지눌이 敎學者의 知解(알음알이)의 병을 治斷하고, 看話의 참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지눌의 또 다른 저술인 『圓頓成佛論』과 함께, 지눌이 入寂(1210)한 후 수선사의 제2대 社主人 慧謙에 의하여 발견되어, 1215년에 처음으로 修禪社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간화결의론』은 바로 大慧의 看話禪이 지눌에 의하여 수용되고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눌에 의하여 수선

이 1215년 수선사에서 간행된 바 있다.

⑦ 참선의 妙味 즉, 禪旨을 표시하는 圓相(○)을 모아 엮은 책인 『중문원상집』⁷⁵⁾이 1219년에 妙峰庵에 주석하는 夢如⁷⁶⁾에 의해서 간행된다. 몽여는, 지눌과 혜심의 뒤를 이어, 1234년부터 수선사의 第3世 社主가 되는 수선사의 핵심인물이다.

⑧ 12세기 미약해진 고려 선종계에 활력소를 불어넣으며 조계종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였던 「능엄경」에 대하여, 중국 임제종의 禪師였던 계환의 연구서인 「능엄경 계환소」⁷⁷⁾는 13세기 조계종의 기반 확립에 큰 도움을 준 佛典이다. 이와

사가 개창되면서, 이 「간화결의론」은 修禪社를 비롯한 조계종의 매우 중요한 지침서로 간주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75) 『宗門圓相集』은, 고려 후기의 高僧인 至謙이 禪旨을 표시하는 원상(圓相; ○)을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1219년(高宗 6)에, 나중에 修禪社의 제3世 社主가 되는 淸眞國師 夢如(?~1252)가 跋文을 쓰고 妙峰庵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발문에 의하면, 圓相은 중국 육조 慧能의 제자인 慧忠이 처음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華藏寺에서 禪修行을 하던 지겸이 여러 禪錄에서 圓相 170칙(則)을 채록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몽여는, 수선사의 第2世였던 慧謙이 입적한 1234년부터 1252년까지 수선사의 사주로 활약하였다. 이 『중문원상집』은 몽여가 혜심의 제자로 있을 때에, 선을 수행하는 남자(衲子)들에게 이런 圓相들을 보이면서 근기(根機)에 따라 이치를 증득함이 빠르고 더딘 것을 설명하는 방편(方便)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76) 몽여(?~1252): 修禪社 16國師 중 第3世 국사. 몽여가 수선사 제3세로 활약한 시기는 스승 혜심이 입적한 1234년부터 그가 입적하기까지의 18년간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고려 불교는 거란과 몽고의 침략으로 祈福佛教가 크게 성행하였던 시기로서, 궁중에서는 거의 매월 복을 비는 여러가지 도량(道場)이 열렸고, 황룡사구층탑이 몽고에 의하여 불타는 등 침체일로에 있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수선사를 맡아 지눌에 의해서 선양된 禪風을 크게 진작시켰다. 또한, 혜심의 「禪門拈頌」을 열람한 뒤 거기에 347칙(則)을 첨가하여 보완하는 등, 참신한 선풍을 잇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법왕으로 추앙받으면서 混元과 天英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1252년 수선사 社主職을 제4세 혼원에게 물려주고 입적하였다.
- 77) 『楞嚴經 戒環疏』를 논술하기 전에 먼저 『楞嚴經』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능엄경」은 李資玄(1061~1115)과 默庵坦然(1070~1159) 등 고려 중기 이래 이 「능엄경」 중심으로 당시 미약해진 선종계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조계종의 중요 경전이였다. 특히 탄연은, 宋에 유학한 적은 없지만, 혜능의 범맥을 계승한 중국 臨濟宗의 介謙禪師에게 法의 인가를 받았다. 또한 탄연은 중국 임제종의 선사인 戒環 등과 서신을 통하여 道友가 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斷俗寺大鑑國師國師碑”, 『朝鮮金石總攬』, 上卷, 563). 그리하여 탄연은 중국 임제종의 선승들로부터 그 높은 수준을 인정받음으로써 ‘臨濟義玄의 九世孫’이라고 記錄할 정도였다. 특히 「능엄경 계환소」는 탄연과 인연이 깊었던 중국의 계환이 저술한 「능엄경」에 관한 論疏로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중요시 되었고, 조선

같은 『능엄경 계환소』가 1235년에 최이의 喜捨에 의하여 해인사에서 간행⁷⁸⁾된 것은, 최이와 당시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과의 밀착된 정도를 가늠하게 하여 준다. 특히 이 불전을 간행한 해인사⁷⁹⁾는 당시 한반도 남동부 대몽항쟁의 주요 거점사찰이었을 것임을 추정하게 하여 준다. 바로 이로 보아, 최이는 당시 수선사와 백련사 결사에 지성(至誠)으로 공을 들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준다.

⑨ 1237년에는 晉陽侯 최이의 發願에 의하여 『(大字)금강반야바라밀경』이 群生寺에서 간행(海印寺 西版殿에 保存)되었음⁸⁰⁾을 확인할 수 있다.

世祖 때에는 국문(國文; 諺解)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후각본이 현존하고 있을 정도이다 (허홍식, “高麗中期 禪宗의 復興과 看話禪의 展開,” 『高麗 中後期佛敎史論』 (서울: 불교학회, 1986), 147-148. 참고). 이와 같이 고려 중기 이자현 이하 선종에서 『능엄경』을 중요시한 전통이 바로 이 당시에 ‘계환이 해설한 『楞嚴經疏』’를 주목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능엄경』은 고려 12세기에 조계종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경전이며, 그 후 13세기에 들어와 『능엄경 계환소』가 조계종에서 다시 중요시됨으로써 조계종의 기반 확립에 도움을 준 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8) 海印寺 東版殿.

79) 여기서 特記할 만한 사실은, 이 책을 간행한 해인사를 주목하여 볼 수 있다. 즉, 해인사에서 이 당시인 1223년에 이미 白蓮社 結社의 핵심기저(核心基底)라 할 수 있는 『天台四敎儀』를 간행하는가 하면, 그 2년 뒤인 1235년에는 『楞嚴經戒環疏』를 간행하였고, 게다가 그 2년 뒤인 1237년에 『(대자)금강경』을 간행하도록 최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즉, 최이는 해인사에 대하여 격년에 한번씩 3회 연속으로 큰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해인사는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 백련사와 수선사가 연합한 대몽항쟁의 주요거점사찰(主要據點寺刹)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80) 『金剛般若波羅密經』은 팔공산(公山) 群生寺의 住持인 探古의 시주에 의하여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선사에서 간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金剛經』은 중국의 선종 특히 육조·혜능 이래 조계종의 所依經典이기 때문에, 조계종을 비롯한 선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전이다. 『한국서지년표』에 의하면, 1095년 大興王寺에서 『금강경』이 한번 간행(雕造)된 이래, 12세기에는 『금강경』이 전국에서 간행된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2세기 당시 조계종의 쇠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보조·지눌이 1190년에야 팔공산 거조암에서 <定慧結社文>을 작성하였고, 1200년에 송광산 길상사로 옮기고 난 다음에야 修禪社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이 수선사의 결사에 대웅이 운집하면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수요도 자연 증가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이 간행된 群生寺는 지눌이 <정혜결사문>을 작성하였던 거조암과 함께 八空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 및 吉祥寺(修禪社)에 이르기까지 남부지방의 사찰 중 조계종에 소속된 寺院과 승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팔공산 군생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간본에는 金剛經啓請·淨口業眞言·發願文 등이 수록되어 있고, 말미에는

위와 같이 13세기 초기에 수선사와 관련한 9종의 佛典에 대한 간행사항을 살펴 보면, 수선사 결사에서 미진한 참고자료 즉, 1239년 당시에 修禪社를 비롯한 조계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던 자료는 바로 「남명송증도가」였을 것이라고 추단(推斷)하여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禪門에서 오묘(奧妙)한 깨달음(覺)의 상태를 노래한 영가대사의 「증도가」는 그냥 막연하게 그 내용을 해석하기만 하여서는 결코 바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도가」는 1209년에 이미 수선사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이 「증도가」의 내용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책인 「남명송증도가」가 간행된다면, 수선사를 비롯한 조계종의 승려들이 실제의 참선수행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이가 1239년에 금속활자본 「남명송증도가」를 번각하여 목판본으로 시급(時急)하게 간행함으로써, 이 같은 최이의 「남명송증도가」 간행은 수선사의 第3世 社主인 몽여로부터 크나큰 환영을 받았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리하여, 바로 이로 인하여 최이는 당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큰 지지를 받고 있던 수선사를 비롯하여, 몽여가 이끄는 수선사를 따르는 민중⁸¹⁾들로부터 결정적으로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더욱 굳건하게 확보⁸²⁾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⁸³⁾

般若眞言·金剛經眞言 등이 附記되어 있어, 당시의 밀교신앙과 정토신앙 등을 알 수 있다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51).

- 81) 13세기의 대몽항쟁에서 실제로 끝까지 몽고군에 저항하였던 계층은 바로 피지배계층의 민초(民草) 즉, 농민과 노비들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농민들과 노비까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修禪社나 白蓮社의 결사를 崔怡 무신정권은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두 종파의 실천적 결사운동은 민중의 집단적 결속을 통하여 항진해야 할 강화의 집권자들에게도 매우 긴요한 형태였기 때문이다(허홍식, “고려의 불교종파와 그 변천,”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186-187).
- 82) 한편, 佛教史學界의 13세기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崔怡를 비롯한 무신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당시 불교계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였다는 연구도 없지 않다. 실제로 『高麗史』의 記述에서도 왕권을 유린하였다는 관점에서 최씨 무신정권을 폄하(貶下)하는 기록도 보인다.
- 83) 뿐만 아니라 이는 최씨 무신정권의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최이는 1238년 몽고군에 의하여 경주 황룡사의 목조9층탑이 소실(燒失)되었음에 따라 흥흥해진 민심을 수습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재조대장경>의 조조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몽항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최이 정부는 집권 당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수선사와의 더욱 밀착되고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최이는 당시 수선사 도량(道場)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남명송증도가』를 번각·간행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⁴⁾ 이것이 바로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위와 같이 최이 정부는 대몽항쟁 및 국가수호를 위하여, 수선사의 결사를 비롯한 백련사의 결사 등을 민족정신의 求心點으로 삼고, 이와 동시에 ‘고려재조대장경 조조의 완성’이라는 기치(旗幟)를 내세움으로써 민족의 공통적 귀일점(歸一點)을 찾아, 문화적 自尊意識을 표출시킴과 아울러 야만족(蒙古)에 대한 우월감이 강조되는 기운을 두드러지게 하였던 것이다.⁸⁵⁾⁸⁶⁾

84) 위와 같이 최이정부는 대몽항쟁이라는 이른바 속제(俗諦: 世間)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佛書(禪書)의 간행이라는 진제(眞諦: 出世間)의 방법론으로 대처하였던 것은 실로 탁견(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난극복과 대몽항전의 수행이라는 가장 세속적이고 다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의 정치·사회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가장 출세간적인 깨달음의 문제를 거론하는 ‘남명송증도가’의 간행’을 지렛대 역할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13세기 전기에 있어서 무신정권은 몽고의 침략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조대장경>을 雕造하고, 수선사에서 가장 요긴한 결사운동의 실천을 위한 核心佛書인 『남명송증도가』를 간행함으로써, 국난극복과 대몽항전을 수행하기 위한 이념적 기반을 구축하여 당시 국민들인 대다수 농민들과 천민들에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佛敎史學界에서는 위와 같은 최씨 무신정권의 국난극복 대처방법은 무신정부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불교를 정치에 이용하였다고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史學界의 견해는, 史書 등 기록에 나타난 政治的 力學構造의 파악에만 관심을 둔 결과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심리적 정신세계 및 개인 內面의 실상에 대한 파악은 기록의 표면에서 그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남명송증도가』의 간행기록과 관련하여 그 記錄의 이면(裏面)에서 文化史的 의미(意味)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85) 민현구,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295. 참고.

86) 그리하여 고려는 원(元: 蒙古)이라는 제국의 거대한 무력에 맞서 대몽항쟁을 40년 동안이나 지속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사례이다.

5. 결 론

이상의 본문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남명송증도가」의 간행배경에 관한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명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영가대사 「증도가」의 각 구절에 남명화상 법진(法泉)이 계송을 붙여 깨달음(覺)의 實體를 설파한 책이다. 바로 이 책의 간행으로 인하여 고려 중기 불교계에 曹溪禪(看話禪: 修禪社의 結社)이 정착될 수 있는 기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명송증도가」의 체제는 ‘1) 序文, 2) 本文, 3) 後序, 4) 최이의 刊行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이는 이 간행기에서, 「남명송증도가」는 禪門에서 가장 요긴하여 으뜸으로 요구(樞要)되는 도서임을 강조하고, 이 책을 목판본으로 대량 인쇄·배포하여 영구전래(永久傳來)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제2장에서는 13세기 초기 고려의 시대상황 및 불교계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13세기 初期는 몽고의 침략으로 인하여 당시 고려의 社會相은 극도로 혼란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최이 무신정권이 지속되었으며, 불교계에서는 고려 불교계의 지각변동이라 할 수 있는 修禪社와 白蓮社의 結社運動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이러한 결사운동은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대다수 농민과 천민들이 참여하는 민중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편, 그 시대상황으로는 몽고의 침략(1231) 이후 1232년에 초조대장경이 몽고군에 의하여 불타고(燒失), 몽고의 격퇴를 위한 고려제조대장경의 조조 사업이 1236년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다. 또한 1238년 경주 황룡사 목조9층탑이 몽고군에 의하여 불타고(燒失), 그 이듬해인 1239년에는 「남명송증도가」가 목판으로 간행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셋째, 제3장에서는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종파들을 고구하였다. 그 결과,

1) 초조대장경은 유가종을 중심으로 완성되었으며, 교장(敎藏: 속장경)은 화엄종에서 주도하여 조성하였다.

2) 11세기말 대각국사 의천이 개창한 천태종은, 13세기에 요세(了世)가 일으킨

백련사 결사에 의하여 일반 백성들의 큰 호응으로 받으며 그 교세를 떨쳤다. 백련사는 123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강력한 대몽항쟁을 표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련사와 최이 무인정부와의 관계가 집중되면서, 최이는 백련사 결사를 통한 대몽항쟁의 이념적 토대의 마련 및 협조를 모색하는 것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백련사를 중심으로 한 천태종은 1230년대와 1240년대에 무신정권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조계종은 의천의 천태종 창립 후 한때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보조국사 지눌에 의한 定慧社(1190: 후에 修禪社로 개칭)의 결사 이후 무신정권은 수선사에 급격하게 접근하게 된다. 특히 최이는 수선사의 제2세 社主인 혜심을 공경하여, 직접 수선사에 入社하고 그의 두 아들을 수선사에 출가시키면서, 수선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최이가 이토록 수선사에 밀착한 이유는, 당시 수선사의 결사는 몽고와의 전쟁을 직접 치루고 있는 고려 일반백성(民衆)들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이 무신정부는 강화로 천도(1232)한 상태에서 연이어 침략하는 몽고군이 스스로 물러가기를 기원하여 君臣이 함께 고려제 조대장경의 조조(刻板)를 발원하고 1236년부터 대장경의 판각을 시작하였지만, 1238년에 경주 황룡사 목조9층탑이 몽고군에 의하여 燒失되자, 흥흥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선동하여 대몽항쟁을 지속하기 위한 이념적 기반을 당시 수선사를 통하여 제시하여야만 하는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이는 대몽항쟁의 이념구축을 위한 기반을 수선사의 결사에서 찾아내고, 수선사의 결사와 연대(連帶)함으로써 수선사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도출(導出)해 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선사를 따르는 일반백성들을 규합하여 보다 강력한 대몽항쟁을 지속(持續)하고 아울러 재조대장경의 조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염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이는 당시 수선사의 결사운동 및 그 이념의 구축에 가장 절실한 理論書인 이른바 禪門에서 으뜸으로 요구되는 禪書의 간행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선사에서 13세기초부터 「육조단경」과 「증도가」 등 9종의 佛典을 간행한 바 있지만, 南宗禪의

깨달음의 실체를 노래한 「증도가」를 가장 명쾌하게 해설한 「남명송증도가」의 전래가 끊겨서 유통되지 않음을 간파(看破)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최이는 1239년에 금속활자본 「남명송증도가」를 목판본으로 번각하고 이를 대량인쇄 및 배포함으로써, 수선사측으로부터의 크나큰 환영 및 무신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배경은, 최이 무신정부는 당시 수선사의 결사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남명송증도가」를 간행함으로써 수선사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최이 무신정부는 수선사를 통하여 대몽항쟁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수선사 결사를 따르는 민중(백성)들을 규합하여 보다 강력한 대몽항쟁 및 재조대장경 조조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남명송증도가」를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原典

開豊玄化寺碑. 『韓國金石全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445-446.

『高麗史』.

<http://k5000.nurimedia.co.kr/pSubject/Subject_View.asp?svcid=KR&proid=1>.

『高麗史節要』.

<http://db.itkc.or.kr/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a004&guboonNodeId=seoji&dwSeoji=&NodeId=mk_s_all>.

『景德傳燈錄』.

『南明泉和尚頌證道歌』. 影印本. 서울: 삼성출판사, 1990.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 『한글대장경』 제284권.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2002. <<http://buddha.dongguk.edu/hd.aspx>>.

“斷俗寺大鑑國師國師碑.” 『朝鮮金石總攬』 上卷. 563.

了圓. “天帝邀經而入藏.” 『法華靈驗傳』 卷下.

『六祖大師 法寶壇經』.

李奎報. “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 卷25. 서울: 東國文化社, 1958. 272.

李奎報. “大藏刻版君臣祈告文.” 『東國李相國集』 卷25. 서울: 東國文化社, 1958. 272-273.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全.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史, 檀紀4291.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5>>.

李奎報 選.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并序.” 『東國李相國集』 卷35.

李奎報. “昌福寺談禪勝.” 『東國李相國集』 25卷.

鄭道傳. “置書籍鋪詩并序.” 『三峰集』 卷1.

天因. “初入院令壽齋疏文.” 『東文選』 卷111.

天頊. “答靈巖守金郎中情書.” 『湖山錄』 卷下.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序.” 『東文選』 卷117.

2. 단행본 및 논문

高翊晋. “圓妙國師 了世의 白蓮結社.” 『韓國天台思想研究』.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3. 213-219.

김삼기.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김성수. “高麗 鑄字版 重彫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간행 배경.” 『《南明泉和尚頌證道歌》 복원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미간행본. 청주: 청주시, 2003. 1-47.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閔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 『高麗中後期佛敎史論』. 민족사, 1986.

291-306.

- 박상국 편.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불교학회. 『高麗後期佛教展開史의 研究』. 서울: 민족사, 1986.
- 불교학회 편.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민족사, 1986.
- 俞瑩淑. “고려 무신정권시대 불교계의 동향.”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國會圖書館, 1972.
- 李基白·閔賢九 編. 『史料로 본 韓國文學史 - 高麗篇』. 서울: 일지사, 2003.
-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第48卷. 서울: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3-17.
- 이기영. “증도가의 출현.” 『깨달음의 노래』.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6.
- 蔡尙植. “高麗後期 佛教史의 展開樣相과 그 傾向.”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민족사, 1986. 239-264.
-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 채상식. “고려시대 結社運動의 시대적 인식.”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231-240.
- 千惠鳳. 『高麗鑄字版 重彫本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解說書』. 서울: 삼성출판사, 1990.
- 하일식. 『한국사』. 서울: 일빛, 1998.
- 한기문. “고려전기 부인사의 위상과 초조대장경 소장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한국중세사학회) 제28호(2010. 4). 137-171.
- 허홍식. “高麗中期 禪宗의 復興과 看話禪의 展開.”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불교학회, 1986. 131-168.
- 허홍식. “고려의 불교종파와 그 변천.” 『韓國佛教史의 再照明』. 서울: 불교시대사, 1994. 186-187.
- 許興植. “13세기 高麗 佛教界의 새로운 傾向.” 『高麗中後期佛教史論』. 서울: 민족사, 1996. 69-98.

書誌學研究 第47輯(2010. 12)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6.

허흥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허흥식 편. 開豊玄化寺碑. 『韓國金石文全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445-446.

黃壽永 編著. “高麗僊鳳寺大覺國師碑陰記.” 『第五版 韓國金石遺文』. 서울: 一志社, 1994. 476.